

2024 파나마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코로나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회복세 강화	6
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 향상 노력	6
다.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설시장 활성화	7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2.	시장 분석	13
가.	시장 특성	13
나.	교역	14
다.	투자	18
라.	프로젝트	19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1
가.	교역	21
나.	투자 진출	23
다.	협력 유망 분야	24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27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28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9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3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0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1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2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가. 시장전망

▣ 경제 회복세 지속: 2023년 GDP 성장률 5.7% → 2024년 5.9% 예상(World Bank)

- 교통·운송 분야, 관광업, 광업 상승세를 기반으로 올해 완만한 성장 예상
 - 파나마 운하 통행료 체계 개선 이후 정부 수입 증가
 - 구리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동광업 상승 기조 유지

▣ 파나마의 단기경제위험지수(STERI) 점수 64.8/100점(Fitch Solutions)

- 강점: 구조적으로 완만한 물가상승률 유지
- 단점: 낮은 재정 건전성은 위험요인이므로 사회 지출액 조정 필요
 - 파나마 재정적자는 2022년 GDP의 5.2%에서 2023년 4.1% 축소 전망
 - 전년도 물가 상승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파나마 정부 재정 지출이 확대됨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e)
인구 ^①	백만 명	4.1	4.2	4.2	4.3	4.3	4.4	4.5	4.5
명목GDP ^①	십억 달러	62.2	65.0	66.8	54.0	63.6	72	77.3	82.2
1인당 명목GDP ^①	달러	15,178	15,613	15,878	12,616	14,664	16,038	17,191	18,216
실질성장률 ^①	%	5.6	3.7	3.0	-17.9	15.3	7.5	5	5
실업률 ^①	%	6.1	6.0	7.1	18.5	11.3	8.8	8	8
소비자물가상승률 ^①	%	0.9	0.8	-0.4	-1.6	1.6	2.9	2.2	2.2
재정수지(GDP대비) ^①	%	-2.8	-3.7	-3.6	-5.2	-4.9	-3.7	-3.0	-2.0
총수출 ^②	백만 달러	650	670	1,504	1,709	3,558	3,652	1,759 (1~6월)	-
(對韓 수출) ^④	"	405	255	252	159	224	300	206 (1~7월)	-
총수입 ^②	"	12,720	13,232	12,836	8,178	11,558	15,230	7255 (1~6월)	-
(對韓 수입) ^④	"	21	25	45	163	394	354	207 (1~7월)	-
무역수지 ^{②③}	백만 달러	-12,070	-12,060	-11,332	-6,469	-8,000	-11,578	-	-
경상수지 ^①	"	-3.8	-5.0	-3,333	1,233	-2,218	-2,223	-3.3	-3.3
환율(연평균)	현지국 /US\$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해외직접투자 ^⑤	억 달러	-138	180	547	92	298	114	-	-
외국인직접투자 ^⑤	억 달러	-	-	40.6	6.1	18.4	-	-	-

주: 對韓 수출입은 편의치적 船(MTI 746)을 제외한 한국 기준 통계, (e)는 전망치
 자료: ①IMF, ②파나마 통계청, ③Global Trade Atlas, ④한국무역협회, ⑤UNCTAD Stat

- ※ 긍정적 경제 전망 및 주요 산업 분야 회복세
- ※ 정부 수입 증가 및 재정적자 규모 축소 노력
- ※ 대규모 공공 인프라 건설 사업 두 자릿수 성장률 유지

가. 코로나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회복세 강화

▣ 3년 연속 5% 초과 경제성장률

- 세계은행(WB)의 파나마 경제성장 분석
 - 실질경제성장률: '21년 15.3% → '22년 7.5% → '23년 5%
 - 중미 국가 중 '23년 가장 높은 성장률(5%) 예상
 - * 도미니카 5%, 온두라스 3.1%, 과테말라 3.1%, 코스타리카 2.9%, 니카라과 2%

▣ 위기 극복의 핵심 변수인 민간 부문 회복 기조 유지

- 민간 소비에 대한 낙관적 전망(Fitch Solutions)
 - 관광 등 서비스업의 활성화되면 고용이 회복되어 민간 소비 증대
 - * 민간 소비 GDP 성장기여도 2022년 3.7%p → 2023년 2.1%p
 - 안정적인 물가상승률로 소비 경기 회복
 - * 물가상승률: '19년 -0.4% → '20년 -1.6% → '21년 1.6% → '22년 2.9% → '23년(e) 2.2%
 - 중남미 내 높은 1인당 소득과 구매력이 민간 소비를 뒷받침
 - * '23년 1인당 GDP 중남미 주요 17개국 중 3위(1위 우루과이, 2위 칠레)(2023 IMF 자료)

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 향상 노력

▣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

- 시민사회의 사회 지출 증대 요구와 재정 건전화 조치 간의 균형 모색
 - 2022년 6월경 발생한 전국적 시위 요구에 따라 정부 지출 증가
 - 올해부터 재정건전화법(Ley 34, 2008)*을 준수하는 적자 축소 조치 시행
 - * 2008년 6월 5일 제정,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2~3.5%를 넘지 않도록 규제
 - ** 파나마 정부 재정적자 수준: 2022년 GDP의 5.2% → 2023년 4.1% 축소 예상

▣ 민간 소비와 정부 부채 간의 관계

- 정부 적자는 민간 소비 확대에 제약요인
 - 과도한 정부 부채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력을 약화시킴
 - 정부 소비의 증가보다 소득 보조를 통한 민간 소비에 초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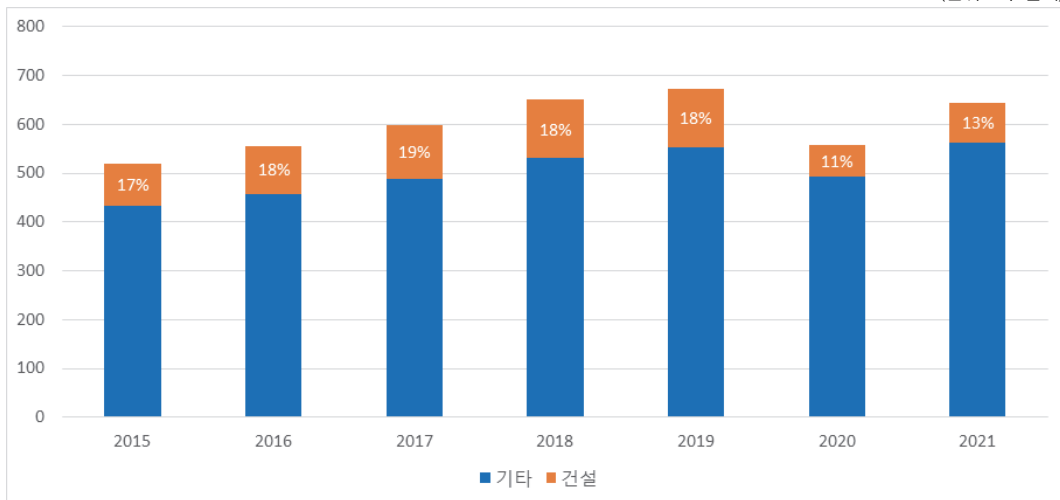
다.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설시장 활성화

▣ 건설은 파나마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핵심 분야

- 건설 분야는 파나마 국내총생산의 10~20% 차지
 - 공공 인프라 개발사업 수요가 두드러짐
 - * 공공 분야가 주도하는 편이나, 민관 합작 등 민간 투자도 활발
 - 코로나19 침체 이후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활성화
 - * 2022년 1~9월 건설사업 비용 전년도 대비 21.6% 상승(Bloomberg Linea)

〈파나마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지출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 파나마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 자료 저자 재구성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높은 수준의 안보와 정책 연속성
- ※ 전통적으로 시장친화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책 기조
- ※ 행정부에 집중된 정치권력으로 인한 부정부패는 위협요인

가. 정치 환경

▣ 파나마의 단기 정치 리스크 점수(STPRI) 64.8/100점(Fitch Solutions)

- (강점) 높은 수준의 안보와 정책 연속성
 - 꼬르티소(Laurentino Cortizo) 정부의 친기업적 경제정책 기조
 - 인플레이션 하락과 고용 전망 개선으로 높은 사회안정성 기대
 - * 사업활동 제약을 초래한 '22.5~8월 전국 노동자 대중 시위 협상 완료
- (약점) 행정부에 집중된 정치권력, 고질화된 부정부패
 - 부의 불평등, 대규모 비공식 노동력 등은 사회 불안정 초래
 - 부패와 재정투명성 부족은 자본 유입과 산업 투자를 약화시킴
 - * '20.5월 유럽연합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 포함
 - ** '20년 파나마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31/100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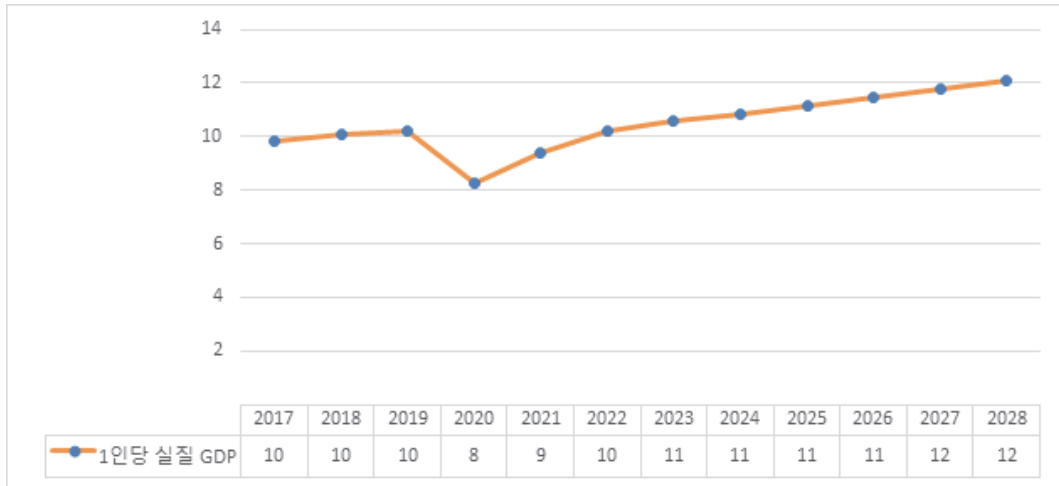
나. 경제 환경

▣ (강점) 팬데믹 이후 5% 이상의 이상적인 경제성장률

- 역내 상위권 1인당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한 높은 구매력 지수
 -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소비와 안정적인 물가' 조건을 충족
 - 구매력 평가 기준이 되는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증가세
 - 물가지수 2021년 최고점(2.86%) 이후 2%대의 안정세 예상

〈파나마 1인당 실질GDP 추이〉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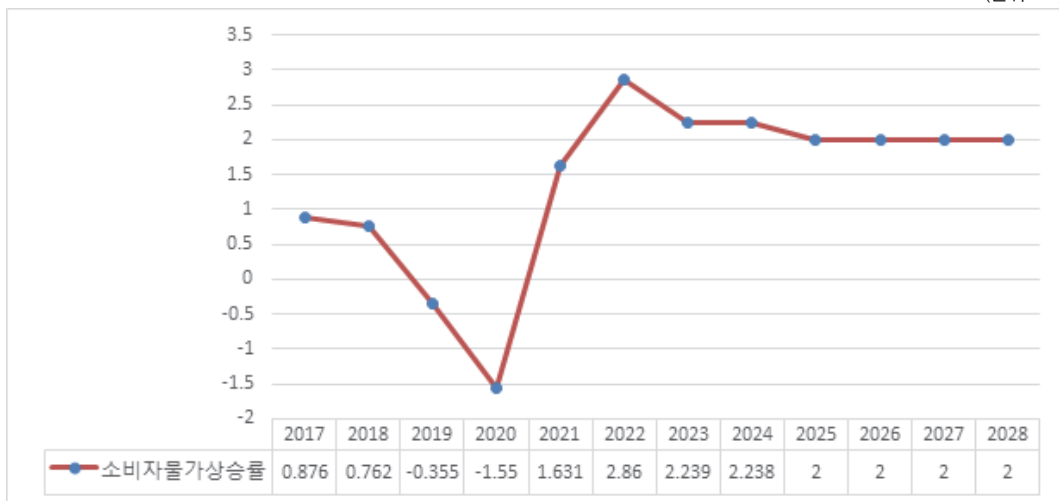


주: 2020년부터 전망치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파나마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주: 2022년부터 전망치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 (약점) 소규모 개방경제로, 세계 경제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외부 충격에 민감한 서비스 부문
 - 운하, 자유무역지대, 물류 서비스 등 글로벌 경기에 영향 大
 - 관광업(숙박업, 외식서비스업, 음식업, 문화예술스포츠업)은 국가 소득의 약 16.4%(WTTC)

다. 산업 환경

▣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 1차산업(농축산임업)이 2.8%, 2차산업(제조, 건설, 광업)이 약 22.1%, 3차산업(서비스업)이 약 47%로 형성('21년 기준)
 - 제조업 및 농업 부문 생산량이 미미하여 주로 서비스 부문에 의존
 - 광산업 생산 확대로 2차산업 비중 대폭 증가
 - *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a)' 동광 개발로 광업 확대('19년 1.5%→'22년 4.2%)

〈파나마 산업별 비중〉

산업/연도		2018	2019	2020	2021
농·임·축·수산 및 광업	농축산임업	2.5%	2.5%	3.1%	2.8%
	광업	1.3%	1.5%	2.4%	4.2%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5.9%	5.6%	5.4%	5.2%
	건설업	18.4%	18.0%	11.4%	12.7%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9%	1.8%	2.3%	2.1%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0.3%	0.2%	0.3%	0.3%
	무역, 도소매업(자유무역지대 포함), 자동차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0%	18.7%	18.9%	19.4%
	교통·운수·보관	10.6%	11.1%	11.3%	11.4%
	음식숙박업	3.1%	3.0%	1.4%	1.6%
	정보통신업	2.4%	2.4%	2.9%	2.6%
	금융보험업	6.4%	6.4%	7.8%	6.9%
	부동산업	2.0%	2.0%	2.1%	1.9%
	과학·기술	3.3%	3.3%	3.1%	3.2%
	공공행정	1.9%	2.2%	2.3%	2.3%
	교육 서비스업	1.0%	1.0%	1.1%	1.0%
	보건 및 사회복지	1.0%	1.0%	1.3%	1.1%
	예술·엔터테인먼트	0.7%	0.7%	0.3%	0.5%
	기타 공공 서비스	0.7%	0.7%	0.6%	0.6%
자가 최종 사용 목적의 산출물		9.0%	9.2%	10.4%	9.5%
공공부문 생산		8.7%	8.8%	11.8%	10.8%
공공 부문 생산	폐기물 처리업	0.0%	0.0%	0.1%	0.0%
	정보통신업	0.0%	0.0%	0.0%	0.0%
	과학·기술	0.0%	0.0%	0.0%	0.0%
	공공행정·국방	4.3%	4.4%	6.1%	5.7%
	교육 서비스업	2.3%	2.3%	2.6%	2.4%
	보건 및 사회복지	2.0%	2.0%	2.8%	2.6%
	예술 및 여가 서비스업	0.0%	0.0%	0.0%	0.0%
	기타 서비스업	0.1%	0.1%	0.1%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부가가치세(VAT) 제외
 자료: 파나마 통계청(INEC)

▣ 소규모 내수시장임에도 매력적인 인구구조 보유

- 전체 500만 인구로 제한된 내수시장 활용방법 모색
 - 주 소비계층인 10~49세의 젊은층이 전체 인구의 약 47%를 차지(INEC)
 - 재고회전율이 높은 소매품(화장품, 의약품 등) 시장 공략
 - 중남미 내 비교적 높은 중산층 비율로 높은 구매력 보유
 - 파나마를 타 중미 국가를 공략하기 위한 거점 시장으로 활용
 - * 2023년 중미 7개국 총인구 5,278만 명(IMF)

라. 정책·규제 환경

▣ 전통적으로 상품·금융시장의 활발한 개방정책 추진

- 14개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 * 4개의 부분무역협정, 21개 투자협정; 한국 FTA, 영국 FTA 발효, 중국과의 FTA 협상 진행
 - * 파나마 FTA 발효국: EU, EFTA, 캐나다, 중미 5개국, 칠레, 대만, 페루, 싱가포르,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등
 - * 다자간 협상: 관세 철폐,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의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 중미 최대 금융 중심지로 해외 투자 유치와 기업활동 규제 개혁에 적극적
 - '23년 5월 기준 189개 다국적기업(중남미 지역본부 역할)이 진출해 있음
 - 특히 '20년에는 '다국적 제조기업 유치 활성화 법안(EMMA)'을 제정, 제조업, 경공업, 운송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함

▣ (ESG)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정책 추진

- 2021년 기준 파나마의 총 발전 설비 용량은 3,951MW로, 수력이 45.8%, 화력이 36.1%, 태양광이 11.3%, 풍력이 6.8%를 차지
-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에너지처는 2050년까지 전체 발전 설비 용량(Power Capacity installed)의 30%를 태양광 및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추진
 - 아울러 화력발전의 천연가스(LNG)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
 - * 천연가스로의 에너지 전환은 발전소 및 파이프라인 건설산업 투자 활성화에 자극

- ※ 개방 기반의 경제 정책 운영으로 수출 투자에 유리한 여건 구축
- ※ 시장 규모가 작으나 교역 허브로서 중남미 전체 경제 회복 시 잠재력 다대

가. 시장 특성

▣ 파나마 시장 특성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하며 개방경제 추구
 - (기회) 운하 및 콜론 자유무역지대 활용 중계무역 발달
 - (기회) 타 중남미 국가 대비 낮은 평균수입관세와 진입장벽
 - (위협) 중국, 타 중남미국, 미국, 유럽 등 수입제품 간 가격경쟁이 치열함
- 소비재는 중소형 바이어 위주로 소량 다품종 취급
 - 대형 수입상이 드물고 단일 소매상이 여러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나, 대량 수입하는 경우 수입 독점계약 요구
 - * 예) 다양한 향맛, 포장재 선호
- 파나마 수입 인증 중에 하나인 '위생등록' 품목의 수출
 -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 등의 위생등록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 소요
 - *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파나마에서 화학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절차
- 협소한 시장 및 단순한 유통구조
 - 단일 판매선과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필요
 - 하나의 법인이 수입·배급·유통 담당
 - * 특히 자동차·부품, 기계류, 장비 등

▣ 역내 항공·해상 물류 허브로 중남미 진출 거점 역할 수행

- 물류 인프라를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 북중미와 남미를 잇는 거점 역할 수행
 - 콜론 자유무역지대 등 보세지역 내 물류창고 집적으로 인근국 재수출 활발
 - * 콜론 자유무역지대(Zona Libre de Colón): 중미 최대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물품의 물류, 가공,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근국의 무역 허브로 자리매김
 - 선박 대형화 추세에 발맞춘 확장 운하 개통으로 물동량 지속 증가
 - 토쿠멘 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소 및 물류 시스템 개선에 따른 항공화물 확대

나. 교역

▣ 파나마의 상품 교역 규모 및 무역수지

- 제조업이 미비하여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출 품목은 부가가치가 낮은 1차산업 위주로 무역적자 지속
 - 2022년 수출은 36.5억 달러, 수입은 152.3억 달러 기록
- '19년부터 동광 생산 및 수출 개시에 따라 무역적자 감소 추세

〈파나마의 상품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6.7	1.5	15.0	124.6	17.3	14.7	35.6	106.2	36.6	2.6
수입	132.3	4.0	128.3	-3.0	80.1	-37.1	115.6	43.1	152.3	31.8

자료: Global Trade Atlas

▣ 파나마의 수출구조

- 2022년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으로 동광 수출에 따라 주요 수출국에도 큰 변화가 이뤄졌음
 - 동광 수출이 개시되기 직전인 2018년에는 농림축산품을 수입하는 인근 국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8년 한국은 16위 수출국에 불과했음

〈파나마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670	1.5	1,504	124.6	1,726	14.7	3,558	106.2	3,652	2.6
1	중국	48	13.6	533	999.0	370	-30.5	1,073	189.9	1,195	11.3
2	일본	7	-5.4	49	597.5	125	154.2	496	297.4	548	10.5
3	한국	7	-5.2	73	884.0	136	86.7	386	183.6	270	-30.1
4	인도	42	25.3	75	79.9	77	2.0	185	140.9	236	27.3
5	독일	8	-19.3	111	1,330.7	29	-73.4	183	522.7	233	27.1
6	스페인	20	-15.8	73	259.2	217	198.6	327	50.8	156	-52.2
7	불가리아	0	N/A	0	1,657.1	56	14,942.3	117	110.9	129	9.9
8	미국	113	-6.3	98	-13.0	106	7.6	131	23.5	124	-4.8
9	네덜란드	114	4.7	143	25.4	141	-1.4	118	-16.3	114	-3.3
10	캐나다	1	-63.0	1	90.2	2	112.7	50	2,307.2	78	57.7

자료: Global Trade Atlas

- 2022년 파나마의 주요 수출 품목은 동광, 바나나, 갑각류, 팜유, 철스크랩 등이며 동광이 전체 수출의 76.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파나마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670	1,504	1,726	3,558	3,652
1	2603	동광	0	793	1,066	2,813	2,797
2	0803	바나나	106	138	152	147	128
3	0306	갑각류	51	34	18	34	69
4	1511	팜유및부산물	21	18	29	44	50
5	7204	철스크랩	46	31	22	47	50
6	3004	의약품	10	26	26	29	46
7	4403	목재	45	43	34	42	46
8	2301	육류어류의가루및팰릿	38	45	33	19	34
9	0302	어류	32	25	40	43	31
10	0901	커피	19	27	25	26	26
11	2208	주류	20	21	19	20	26
12	0202	쇠고기	15	28	29	25	25
13	1701	사탕수수당	29	25	26	23	25
14	2523	시멘트	0	0	0	15	22
15	0807	멜론	10	14	12	16	20

자료: Global Trade Atlas

▣ 파나마의 수입구조

-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스페인 및 중남미 인근국(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 한국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감소세로 한국 브랜드 자동차를 한국이 아닌 멕시코 등 인근국에서 수입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임
 - * 한국 통계상 對파나마 수출에 포함되는 편의치적船(MTI746)의 경우, 파나마 통계상으로는 對한 수입에 포함하지 않아 양국의 통계가 큰 차이를 보임
- '10년부터 미국에 이어 파나마의 제2수입국으로 자리 잡은 중국은 '22년 수입 비중 10.8%를 차지
 -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확대에 따른 중장비, 전력 기자재 등의 경쟁 심화 전망

〈파나마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13,232	4.0	12,836	-3.0	8,077	-37.1	11,558	43.1	15,230	31.8
1	미국	3,282	6.5	3,264	-0.6	2,070	-36.6	2,940	42.0	3,678	25.1
2	*파나마 (석유자유무역지대)	1,715	24.8	1,505	-12.2	538	-64.3	1,236	129.7	2,466	99.6
3	중국	1,335	7.4	1,291	-3.4	851	-34.1	1,382	62.4	1,645	19.0
4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	938	0.5	969	3.3	609	-37.2	860	41.3	850	-1.2
5	*파나마 (수출가공구역)	448	2.2	500	11.6	415	-17.0	548	32.2	708	29.2
6	멕시코	640	2.4	617	-3.6	455	-26.4	561	23.5	653	16.3
7	코스타리카	452	-3.2	472	4.4	360	-23.7	465	29.2	497	6.8
8	콜롬비아	326	0.3	362	11.1	291	-19.4	371	27.3	456	22.9
9	브라질	244	-15.8	198	-19.0	123	-37.5	204	65.2	336	65.0
10	스페인	340	20.0	493	44.9	199	-59.7	231	16.4	304	31.5
14	한국	204	17.5	205	0.6	181	-11.6	240	32.5	269	12.1

주: 파나마 내 자유무역지대(콜론 및 기타 보세지역)를 별도의 국가처럼 집계하고 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 파나마의 주요 수입 품목은 연료, 자동차, 의약품, 휴대폰, 가공식품 등으로 농산물, 어류, 목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 및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음

〈파나마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2,720	13,232	12,836	8,077	11,558
1	2710	석유제품	1,891	2,256	2,045	778	1,710
2	8703	승용차	841	774	755	364	586
3	3004	의약품	446	525	560	518	573
4	2711	석유가스제품	49	77	176	79	124
5	8517	휴대폰	199	192	192	166	202
6	1005	옥수수	87	101	104	107	179
7	2106	가공식품	147	151	155	145	166
8	2309	사료	96	97	94	95	121
9	8471	컴퓨터	145	130	130	113	150
10	3923	플라스틱포장용기	118	116	118	105	124
11	3002	의약품(화장)	50	54	100	65	55
12	8431	건설장비부품	90	78	80	53	71
13	3808	살충살서제	95	96	94	122	124
14	9403	가구	127	118	119	58	99
15	8544	전선	125	104	104	51	86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입 규제, 비관세장벽 등 진입장벽

- 높은 대외 수입 의존도로 무역개방도가 높은 시장
 - 전통적인 개방경제 및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특별한 수입 규제는 없음
 - 주재국 주요 생산 품목인 농산품, 육류를 대상으로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의 수출 품목은 통상 대상이 아님
-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대상 보건부 등록 절차 투명
 - 파나마는 여타국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품목에 대해 보건부 또는 식품위생국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다만, 제품 등록에 소요되는 공식적인 시간과 비용은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슷한 편이나, 선임 변호사/로펌에 따라 변동폭이 커 주의가 필요함

▣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및 시사점

- 국내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및 증미 진출 확대
 - 포스코건설의 파나마 내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더불어 중소기업 한일엔브이의 가설오피스(컨테이너) 건설 협력을 통해 윈윈 효과 창출
 - 대기업 포스코건설의 경우 기존에 현지 EPC 추진 경험이 있는 양질의 협력기업 (한일엔브이)을 확보하고, 최초 현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을 경감
 - 중소기업 한일엔브이는 추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수출 성과를 한층 확대하는 효과를 이뤄냄
- 국내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기자재 납품 확대 동시 추진
 - 국내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추후 추가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대중소 동반 진출을 통해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내 입지 확보
 - 국내 협력업체 연계 진출 기반 마련 및 연관 제품의 수출 가능성 제고

다. 투자

▣ 중미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 중 하나

- 파나마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년 43억 달러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20년 대폭 감소하였으며 '22년 26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
 - '22년 중미 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멕시코(352억 달러), 코스타리카(30억 달러), 파나마(26억 달러), 과테말라(14억 달러) 순임

〈중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파나마	4,282	4,751	3,921	150	1,927	2,640
중미 전체	45,327	45,059	44,008	32,577	42,562	44,480

주: (해당 국가)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자료: UNCTAD

- 중남미 항공·물류·금융 허브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우수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본부 형태로 진출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물류·항만, 공공교통, 전력 등 인프라 분야, 금융 서비스, 부동산 등임
 -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다국적기업 대상 각종 면세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중
 -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로 유치된 189개 기업('23년 5월 기준)을 통해 3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 및 7,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평가
 - 특히 '20년에는 '다국적 제조기업 유치 활성화 법안(EMMA)'을 제정. 제조업, 경공업, 운송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함

▣ 新정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민관 합작 투자 법안 제정

-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의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골자로 하는 민관 합작 투자 법안(Ley de Asociacion Publica Privada, APP)* 제정
 - 정부와 공공 서비스 장기 계약을 통해 수도권에만 편중되던 투자에서 벗어나 지방 발전 사업에도 신규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메가 프로젝트 실행과 초과 소비로 인해 국가 부채가 사회재정책임법의 적자 한계선에 근접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 * 최대 30년 계약(추가 10년 연장 가능), 국영은행의 자금 공급 상한선 25% 및 적용 대상 프로젝트 비용 하한선을 1,500만 달러로 규정함

▣ 주요 경쟁국 투자 진출 동향

- 외국인 직접투자 적극 유치 정책으로 다양한 국가 대상 투자 진출 개방
 - 주요 투자 국가는 미국 외 유럽 국가(영국, 스페인), 인근 중남미 국가(콜롬비아, 멕시코), 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등 다양함
 - 중국의 경우 양국 수교 이전까지 주로 홍콩계 기업을 통해 파나마에 투자해왔으나, 2017년 6월 중국과 정식 수교를 통해 인프라,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파나마를 중미·카리브지역 진출 거점으로 활용해왔으며, 최근 항공기 정비, 공공교통 인프라 사업에 참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투자 진출 진입장벽

- 파나마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국가로 투자 진출 시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음
- 단, 숙련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노동법상 외국인 고용비율을 제한하고 있어 고급 노동력 확보에 애로사항 발생함
 - 외국인 고용은 일반직의 경우 전체의 10%, 기술 전문직의 경우 15% 내에서 허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현지 노동청으로부터 근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우리 기업 진출 성공 사례

- 파나마 진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우, 2019년 지사 설립 이후 약 3년 만에 파나마를 비롯한 인근 중남미 시장 국가 딜러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후 가장 큰 시장인 브라질로 이전하였는바 파나마를 투자 진출 인큐베이터로 활용한 좋은 사례임

라. 프로젝트

▣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방향

- 국가 주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 ‘2020~24 국가전략계획’에 따라 120여 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자금 조달 문제로 지연된 다수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한국 기업 파나마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이력〉

프로젝트	내용
운하 확장공사 수문 및 구동장치 설비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 GUPC(Grupo Unidos por El Canal) • 수주기업 : 현대삼호중공업 • 규모 : 1.9억 달러 • 참고사항 : 2016.4월 완공
파코(Panama-Cobre PACO) 석탄화력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 MPSA(Minera Panama S.A) • 수주기업 : SK건설 • 발전소 위치 : Punta Rincon(콜롬주) • 규모 : 300MW(약 6억 달러) • 참고사항 : 2018 완공(파코 구리광산에 전량 공급)
싼타리타(Santa Rita) 디젤발전소 건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 Jinro.Co. Ltd (Etesa로부터 수주, 원청기업) • 수주기업 : 한일엔브이 • 발전소 위치 : Santa Rita(콜롬주) • 규모 : 58MW(약 5,000만 달러) • 컨소시엄 : 한일엔브이와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 구성 • 공사기간 : 2015.6~2016.2
AES 천연가스 발전소 및 LNG 터미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 AES (Etesa로부터 수주, 원청기업) • 수주기업 : 포스코건설 • 발전소 위치 : 콜롬시 • 규모 : 381MW(약 6.5억 달러) • 공사기간 : 2016~2018
파나마시티 메트로 3호선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 파나마 지하철공사 • 수주기업 : 현대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 규모 : 25km, 14개 역(25억 달러) • 공사기간 : 2021~2025
가툰 복합화력 발전소 및 LNG 터미널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 Interenergy + AES • 수주기업 : 포스코건설 • 규모 : 670MW(발전소), 6,500억 원 • 공사기간 : 2021~2024

자료: 관련 기사 및 진출업체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한국과 파나마,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 한국은 공산품, 파나마는 1차 상품 중심의 수출구조
 - 파나마의 주요 수출 품목 : 동광, 열대과일, 팜유, 커피, 해산물 등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건설장비 등

〈한-파나마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연번	MTI	품목명	2020년		2021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1	7411	승용차	9,942	-9.9	38,983	33.7
2	3203	타이어	18,231	10.3	23,048	0.1
3	7420	자동차부품	8,945	-1.5	13,651	1.8
4	0154	연초류	5,097	9.3	12,955	-8.8
5	2262	의약품	14,024	23.5	11,750	-5.8
6	7111	원동기	7,689	-1.8	8,319	7
7	6111	철강및비합금강형강	2,580	-	7,746	-
8	7251	건설중장비	5,891	-35.5	7,482	-11.5
9	8352	축전지	6,525	-4	6,447	-1.9
10	7412	화물자동차	2,136	-15.2	6,244	15.9
전체	-	총계	1,369,395	414.2	1,570,171	294.1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편역치적(선박) 제외 통계

- 팬데믹 경기 침체로 인한 對파나마 수출 축소 및 향후 증대 필요성
 - 한국의 對파나마 교역은 '19년까지 연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다가 '20년부터 적자 전환 → 유망 품목 공략 및 흑자 전환 필요

〈한-파나마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7	404,697	20,932	383,766
2018	254,284	25,375	228,909
2019	252,552	44,907	207,645
2020	159,891	162,465	-2,573
2021	225,524	393,804	-168,280
2022	302,026	354,853	-52,827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편역치적(선박) 제외 통계

▣ 한-파나마 FTA 2주년, 활용 필요

- 관세 철폐에 따라 철강제품, 알로에음료, 배전반 등 수혜 품목 유망
 -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등 관련 국내기업 수출에 탄력 전망
 - * 對파나마 자동차부품(MTI 7420) 수출(백만 달러): '20년 8.9 → '21년 13.7 → '22년 15.0

〈對파나마 유망 품목 중 대표 FTA 수혜 품목〉

	HSK(10단위)	제품명	양허 유형
1	2202909000	알로에 음료	A(즉시 철폐)
2	2710190000	각종 연료 및 윤활 오일류	종류에 따라 A~X
3	3304991000	기초화장용 화장품	B(3년 이내 철폐)
4	3304992000	메이크업용 화장품	A(즉시 철폐)
5	3304993000	어린이용 화장품	A(즉시 철폐)
6	3304999000	기타 화장품	A(즉시 철폐)
7	7210701000 7210709000	페인팅하거나, 바니시하거나,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E(10년 이내 철폐) A(즉시 철폐)
8	7606121000 7606129000	알루미늄 합금판	A(즉시 철폐)
9	8481801000 8481802000 8481809000	파이프 · 보일러 · 탱크 등에 사용하는 기기(밸브 외)	A(즉시 철폐)
10	8479891010	공기청정기	A(즉시 철폐)
11	8479899010	프레스 · 압출기	A(즉시 철폐)
12	8479899020	선박용 · 어업용 기기	A(즉시 철폐)
13	847989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 · 튜블러 리벳팅(tubular rivetting)기	A(즉시 철폐)
14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A(즉시 철폐)
15	8703000000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A(즉시 철폐)
16	870830000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A(즉시 철폐)
17	9031800000	검사용 기기, 윤곽투영기 등 의료기기	A(즉시 철폐)

자료: FTA 강국, KOREA(www.fta.go.or)

나. 투자 진출

▣ 한국의 對파나마 투자 동향

- 우리나라 對파나마 투자는 2022년 기준 2억 3,500만 달러 수준
 - 주요 투자 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
 -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편의치적선(船)의 운영을 위해 파나마에 회사를 설립하고 선박을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추정됨 (기타운송장비 임대업)
- 우리나라 對파나마 투자 분석
 - 부동산 및 임대업과 운수 및 창고업에서 강세를 보이며, 제조업은 미미한 편

〈한국의 對파나마 산업별 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9월)
제조업	1	34	-	-	-
건설업	-	-	5	156	-
도매 및 소매업	-	-	50	200	8,855
운수 및 창고업	4,120	13,420	44,180	26,000	-
부동산 및 임대업	201,478	177,597	270,811	62,347	226,09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307	836	1,540	-	-
총계	224,925	193,906	318,607	88,703	234,94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강점) 중미 국가 허브, 연결국 역할, 거점으로 활용

- 콜론 자유무역지대(FTZ Colon) 등 물류 인프라 구축에 양호한 조건
 - 도소매, 물류업(창고, 운송) 유망
 - 주위 중미 국가 간 유사한 문화 및 유통망 활용
 - * 법인 설치를 통해 파나마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 파나마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FDI 유치 정책 활용
 - 통상산업부(MICI), 투자진흥청(PROPANAMA)* 등
 - * '21.4월 207법을 통해 설립

▣ (약점) 높은 비용으로 인해 거점 생산 기지로 활용하기 어려움

- 생산설비 설치 및 운영의 비용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움
 - 역내 비교적 높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임대료, 해외 배송비 등
 - 노동자 조합의 잦은 시위 예상 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 * 일례로 '노사분규 건수'는 FDI 주요 결정요인
 - 기존 생산업 진출 기업이 부족하여 클러스터 및 시너지 효과 미비

다. 협력 유망 분야

▣ (G2G) 한국의 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원 다원화 경험 공유

- 파나마 에너지 수급 구조 변화
 - 수력발전 및 석유에서 천연가스로의 패러다임 전환기 도래
 - * 기후변화 대응 및 탈탄소 정책의 일환
 - ** 파나마 최대 규모(670MW, 10억 달러) '가툰(Gatun)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예정
 - 에너지 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파나마와 한국의 경험 유사
 - * 파나마는 중미 국가 중 최대 에너지 소비국
 - 한국의 에너지 다원화, 원자력 발전 개발 정책,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정책 사례 공유
 - * 1차 석탄 → 2차 석유 → 3차 천연가스, 원자력으로 다원화

▣ (G2G, G2B) 정부 공공 인프라 개발사업의 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

- 정부 개발 사업의 비효율적 체계를 파악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업 추진
 - 공공사업부(인프라 개발), 운하청(설비 건설), 보건부(의료시설 건설, 의료기기·의약품) 등 정부 부처의 높은 인프라 개발 투자 수요 활용
 - 취약한 정부 재정 극복 및 개발사업의 비효율적 체계 개선
 - * 재원 마련, 금융 조달, 리스크 관리 방안 확립
 - ** 파나마 공공개발사업에서 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 심각('23.3월 누적 3억 2,000만 달러)
 - PPP 민관협력 투자개발형* 사업 경험 공유
 - * 시공자가 프로젝트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장기간 운영 수입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단순 도급 방식과 달리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아 자금 조달 용이

▣ (B2B) 서비스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협력

- 무역 및 물류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 IT 기업과의 협력 도모
 - 파나마 경제의 30.4% 비중의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 도모
 - * 무역, 도소매업(자유무역지대 포함), 수리 등 개인 서비스업 19%, 교통·운수·보관 11.4%
 - IT산업을 서비스업 구조 개선 및 성장 동력화에 사용
 - * 예) 물류 관리 소프트웨어, 화물 추적 시스템, 통합 디지털 플랫폼 도입

Chapter



진출전략



※ 높은 수준의 안보와 정책 연속성과 친기업적 정부 정책 기조, 높은 경제 회복도와 구매력 수준, 낮은 물가 수준, 환 리스크 부재 등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좋은 요소이나, 고질적 부정부패와 낮은 재정 투명성, 행정적 관료주의, 낮은 IT 활용도 등은 기업활동의 불편 초래 우려

1 PEST 분석

<p>P 정치정책 (Politic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임제 4년 구조 • 공정거래, 환경보호, 고용 법규/규제, 기업 장려책 법안 시행 • 현지 법인 설립 여건 우호적 • 관세, 통상, 환경법 등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체제 유지
<p>E 경제 (Econom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경제성장률 5.7% → 2024년 5.9%로 중미 국가 중 상위권 • 중남미 타 국가에 비해 대출 금리 낮은 수준 • 달러 사용 국가로 환 리스크 無 • 인플레이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 중
<p>S 사회문화 (Soci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1인당 2.3명의 높은 출산율로 안정적인 인구구조 •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 주로 저렴한 가격 인기 • 현지 노동인구의 낮은 직업 훈련도 • 의식의 변화, 가치관, 신념 등에 따른 구매 패턴 변화(환경 관심, 윤리적 문제, 소비자 운동 경향 등) • 플라스틱 금지법 등 친환경적 제품 사용 장려
<p>T 기술 (Technologic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전반에서 IT 및 SW 활용도 낮은 편 • 신기술 및 혁신상품의 진입이 느린 편 • 빅데이터, AI, 로봇, 자동화 등 IT 기술의 활용도와 침투력이 매우 낮은 편

〈파나마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중국, 중남미산 수입품 대비 높은 품질
- 산업 전반 한국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
- 한류를 바탕으로 K-제품의 인기 지속

약 점(Weakness)

-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
- 한국산 기 진출 분야 전기전자·자동차 편중
- 품질·브랜드보다 가격 중심의 시장에서 낮은 가격 경쟁력 보유

기 회(Opportunity)

- 미미한 현지 제조업 부문으로 수입품 의존도 高
- 파나마를 교두보로 삼아 인근국 진출 용이
- 현지 건설업 성장을 배경으로 부자재 수출

위 험(Threat)

-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 심화
- 중국·미국·유럽산 파나마 소비재시장 장악
- 복잡한 수출인증제도(위생등록 등)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전문 바이어 공략 • 수출 확대 후 현지 법인 설립→ 인근국 진출 • 건설 품목 집중 바이어 발굴 및 공략 	중남미 진출을 위한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미엄 시장 공략(디자인, 포장 마케팅) • 대형 유통 바이어 공략(인증 및 마케팅 주도) 	고급 프리미엄 이미지 마케팅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협상 시 바이어 요구(MOQ, 샘플 등) 응대 •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거래선 확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현지 파트너 발굴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업 단독 진출 불가 • 현지 파트너사 발굴 필수(수출 인증, 배급, 마케팅 담당) 	시장조사를 통한 유망 제품 발굴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4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건설업	주요 건설 프로젝트 국내 기업 수주 지원 및 건설 부자재 수출 지원
자동차	자동차 수리 및 부품 시장 진출, EV 시장 선제적 검토
화장품	한류 영향력을 활용한 화장품 마케팅
의료기기·의약품	위생등록을 통한 수입 판로 개척을 위해 제약 바이어 발굴
틈새 품목	유아용품, 펫용품, 친환경 제품

수출 수혜 품목 중심 마케팅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진출 경로 발굴, 장기적·전략적 현지 파트너 발굴을 통한 시장 진출, 새로운 현지 트렌드를 파악하여 틈새 품목 공략

3-1. 건설업 유망 품목 집중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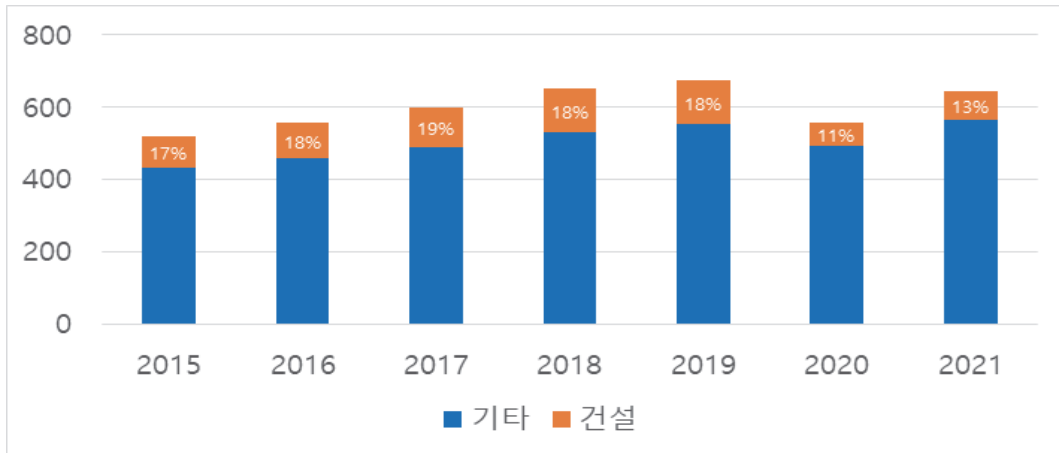
- 파나마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핵심 분야
 - * 건설 분야는 파나마 국내총생산의 10~20%
- '24년 대선 이후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난 후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기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건설업은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핵심 분야
 - 고용 창출 및 국내 소비 진작 효과 大
 - 도로 보수, 교량, 철도, 상하수도 등 공공 인프라 및 민관협력 사업 수행 증가
 - 팬데믹 동안 저조했던 건설 분야 판매 수치 회복세
 - * 2022년 1~9월 건설사업 비용 2021년에 비해 21.6% 상승(Eco TV Panama)

〈파나마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지출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 파나마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건설중장비 및 건설부자재 인기 지속
 - 대표 유망 품목: 굴삭기, 지게차, 화물자동차, 유압 브레이커, 산업용 호스, 건설중장비 부품, 운반 하역기기 부품, 건축자재, 아연도강판, H형강, 철근, 엘리베이터, 항만 설비 크레인
- 부품 시장, 도매 및 딜러 시장, 애프터마켓 시장 등 세부적으로 공략
 - 현지 건설업계 딜러, 도매업자 등을 발굴하여 현지 공급망 정보 확보

3-2. 스테디셀러 자동차 시장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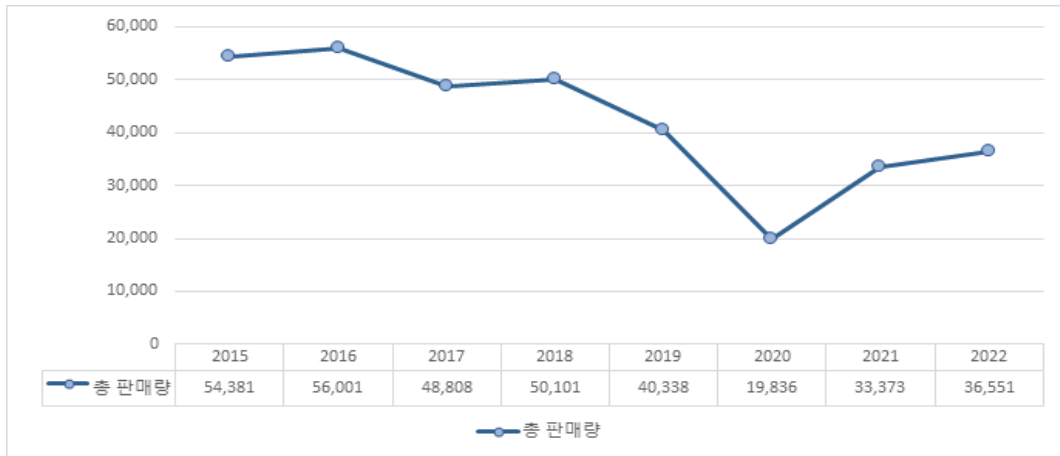
- 중남미 국가 중 고소득 국가로서 한국 브랜드가 강점을 보이는 소중형 세단 및 소중형 SUV 시장 꾸준한 성장
- 콜론 자유무역지대 등 풍부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동차부품의 중계 수출 기회 공략

▣ 전통적으로 자동차 관련 품목 높은 수요 유지

- 팬데믹 침체기 이후 2023년에도 수요 회복세 유지
 - 국민소득 증가, 관세 철폐(FTA) 발효, 중저가 한국·중국산 유입 등이 배경
 - 파나마 등 중미국들의 낮은 연료비 및 높은 중산층 비중
 - * 전년 대비 2023년 자동차 판매 대수 5.6% 상승 예상(Fitch Solutions)
 - 수입 위주 시장, 높은 중고차 수입 비중 및 신차 수요 약화
 - * '20.8월 급작스러운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정부 보조금 지급 → 11월 중단하며 신차 구매 관심도 하락

〈2015~22년 파나마 자동차 판매량 추이〉

(단위: 대)



자료: www.autopista.com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승용차(SUV, 세단 등)와 경량트럭 품목이 현지 자동차 시장 견인
 - 저렴한 가격의 소형·중형 SUV 수요 증가
 - * 한국산(현대, 기아) 및 중국산(JAC Motors, BYD, Geely) 유입

- 반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는 아직 미미하나, 기술 발전 및 가격 하락 이후 수요 상승 예상

* '12년부터 적용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부족, 높은 가격 등이 걸림돌

** '22년 기준 파나마 하이브리드차 1,400대, 전기차 200대(Fitch Solutions)

*** '23년 전체 중미시장 전기차 대수: 코스타리카 94%, 파나마 3%, 과테말라 N/A%(Fitch Solutions)

- 수리 및 부품에 대한 높은 수요 유지

- 평균 사용연수가 긴 편으로 노후화된 부품 수리 수요 高

- '21년 파나마 수입액 기준 한국산 부품 시장점유율 5위

* 미국(25%), 중국(13%), 일본(10%), 벨기에(10%)에 이어 한국(7%)

- 소비자를 위한 무상 보증기간 확대, 대출 및 보험, 판매 및 AS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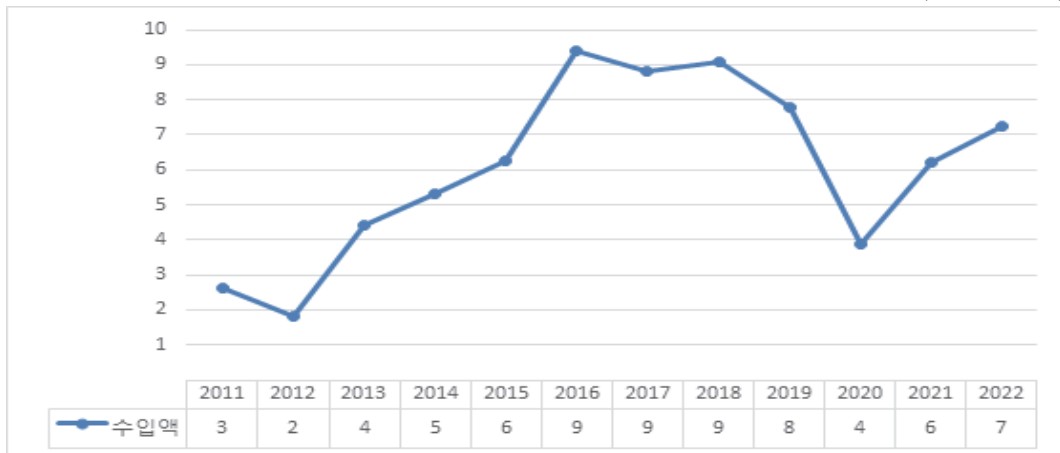
* 공급망 네트워크화, 구입 절차 간소화 등

〈'두루씨엔시'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자동차부품 도매업자인 두루씨엔씨는 2021년 지사화사업에 참가하여 바이어의 '최소 주문 수량' 최소화 요구에 적극 응대함. 초반 5,000~7,000달러의 구매건 이후 신뢰를 쌓고 파나마 현대 완성차 대리점 및 부품 공급사 '페트로아우투스(Petroautos)'와 2만 달러 계약 체결 성공

〈2011~22년 파나마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3-3. 'K뷰티'로 파나마 화장품 소비층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화장품 위생등록 절차의 어려움과 아마존 구매가 용이한 점이 한국 화장품 수출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 한류 전파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바이어와의 원활한 협력 필요

■ 높은 잠재수요를 활용하여 시장 선점

- 한국산 화장품의 파나마 시장 진출 분석
 - (강점) K-뷰티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잠재적 수요 다분
 - (강점) 주 소비층 10~39세 인구가 47%인 파나마 인구구조
 - (기회) 판매자 대량 주문 방식(OEM)이 흔하지 않아 자체 브랜드 홍보 가능
 - *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대량 주문 방식이 드물며, 흔히 국내기업 브랜드 및 포장에 번역 라벨을 붙여 수입함
 - (약점) 다품종 소량 구매 방식으로 인한 장기적 계약 체결 어려움
 - (위협) 유럽, 미국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와의 경쟁
 - (약점) 까다로운 위생등록 절차 등 높은 비관세장벽
 - * 파나마 위생등록제도(Registro Sanitario): 해외 제조 화장품의 수입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 가능성이 높은 기초화장품과 메이크업 화장품
 - 기초 라인 : 바디크림, 핸드크림 등 보습제, 선크림
 - 메이크업 라인 : 클렌징, 쉐딩
- 진출전략 : 바이어 요구에 적극 응대하는 태도
 - 바이어 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 필요
 - * 무상 샘플 제공, 최소 주문 수량 축소 등 제안

3-4. 필수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 의료제품 등록 절차 간소화로 진출 여건 대폭 개선
- 공공 의료 부문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 확대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파나마 의약품 접근성 부족 문제 심화로 인한 수요 확대
 -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구매 및 모니터링 강화
 - * 2023.1월 보건부(MINSA) 132개 의약품 긴급 부족 선언 → 9월 사회보장기금(CSS)을 통해 352개 의약품 구매
 - 의약품관측소*를 통해 국제 의약품 가격 모니터링 및 공급 결정
 - * '19.10월 의약품법(Ley 97) : 의약품관측소(Observatorio Nacional de Medicamentos) 설치
- 파나마 의료기기 공공 입찰 시장 공략
 - 노후화로 인한 의료장비 교체 수요 주시
 - * MRI기기, CT스캐너, 휴대용 디지털 초음파, 유방조영술 스캐너 등
 - 파나마 콤프라(Panama Compra) 입찰 사이트 참고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의약품) 최근 개정된 의료제품 등록·허가 절차 간소화 활용
 - 우리나라 제조 의약품 절차 간소화로 의약품 진입장벽 하락
 - * '23.6.28부 파나마 보건부 지정 '위생 선진국(Paises de Alto Estándar)' 명단에 대한민국 포함
 - 유망 품목 : 소매용 의약품(HS코드 3004)
 - * 기타 비타민 등 함유 의약품(3004.50), 기타 소매용의약품(3004.90)
 -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장기적 파트너십 필수적
 - * 현지 대표인 없이 해외기업이 독립적으로 위생등록 진행 불가
- (의료기기) 공공기관 입찰 및 민간병원 주문 중심
 - 유망 품목 : 심전도 측정기기, 주입펌프, MRI 영상기기, 마취기 등
 - 벤더 등록, 필요한 인증 및 허가 준비를 위한 현지 파트너 발굴 필수

〈'삼성메디슨'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초음파 기기 제조기업 '삼성메디슨'은 현지 바이어 'Biomedical Support System'을 통해 현지 초음파기기 시장점유율 30~50% 도달

3-5.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포착한 틈새 품목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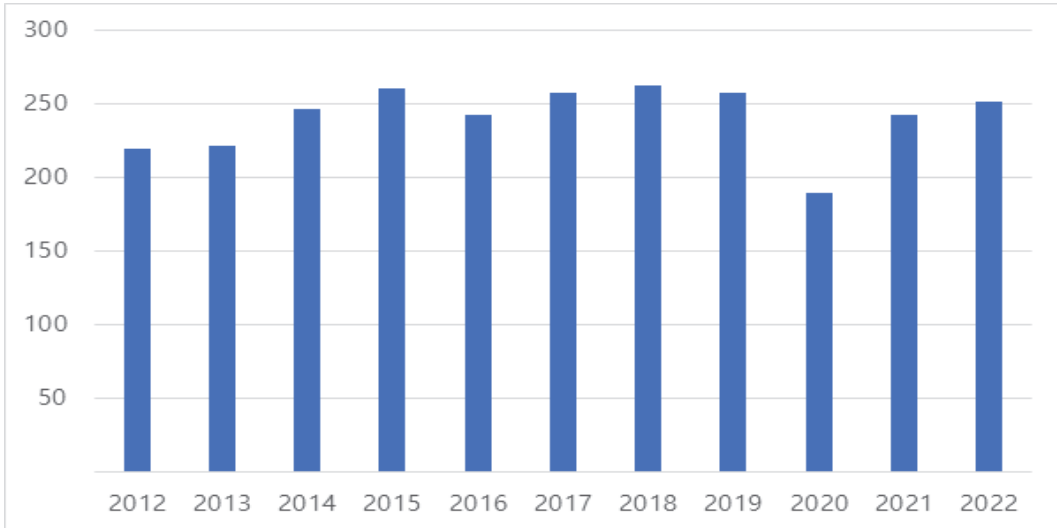
- 높은 출산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겨냥한 영유아용품 시장 유망
- 친환경 국가를 표방하는 가운데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상품 수요 증가
- 반려동물 양육 확대를 바탕으로 한 반려용품 인기

▣ 높은 출산율을 바탕으로 영유아용품 시장 확장

- 수입산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 확대
 - 높은 출산율을 기반으로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 유지
 - * 파나마 여성 1인당 2.3명 출산율, 중남미 19개국 중 5위 출산율(세계은행)
 - 가격경쟁력보다 고품질 제품으로 프리미엄 이미지 강조 필요
 - *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필립스 아벤트(Philips Avent) 등 글로벌 유아용품 브랜드가 현지 프리미엄 시장 장악
 - 영유아용 피부관리, 세면용품 등 高수요
 - * 한국산 유망 품목 : 유아용 세면용품(330491), 기저귀(961900) 등

〈파나마 유아용품 수입액 추이〉

(단위: 연, 백만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파나마 수입 유아용품 HS 코드 모음〉

(단위: 연,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명
190110	조제용 분유
330491	유아용 세면용품
330499	영유아용 피부관리 제품
392410	유아용 플라스틱 식판
392490	유아용 젖병
401490	수유용 젖꼭지
481820	물티슈
611130	유아용 의류
821599	유아용 식기
961900	유아용 기저귀
940180	유아용 플라스틱 안전의자
392210	유아용 욕조
871500	유모차와 부분품
950300	유아용 장난감
620920	면(cotton) 유아용 의류
620930	합성섬유 유아용 의류
62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유아용 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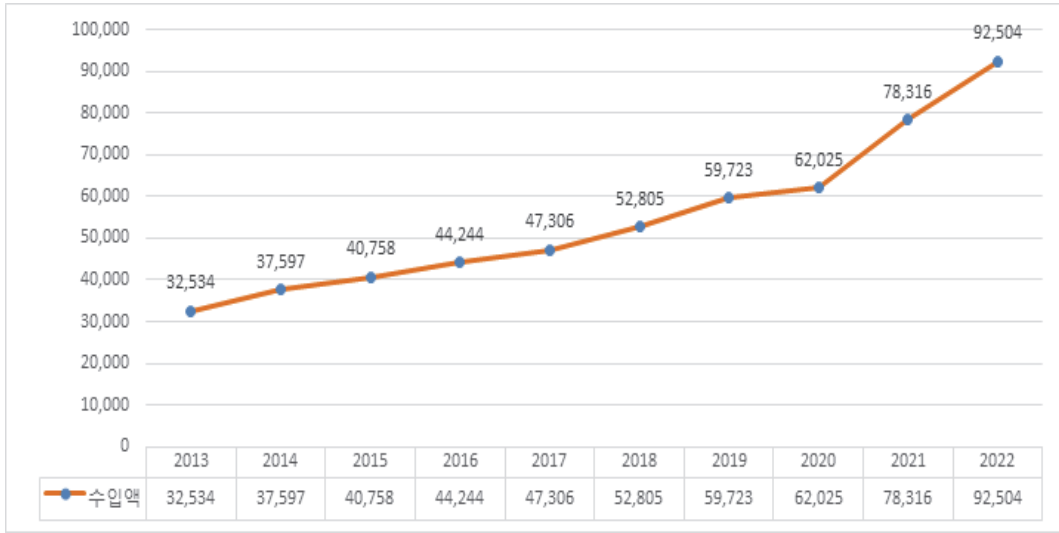
자료: 2023 HS관세율표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를 바탕으로 한 펫(pet) 시장 확대

- 반려동물용품 수입 규모 확대
 - 코로나19를 계기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 반려동물용품 총 수입액 증가('13년→'22년 1.8배)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트렌드 도래

〈파나마 반려동물용품(HS 코드 420100, 230910, 330790)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 규제 변화가 만든 친환경 제품 수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움직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추진
 - 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교육, 악영향 최소화 정책,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친환경 에너지 생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 * 파나마 환경부, '2021~2023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 관리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 전략' 발표

-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
 - 플라스틱 대체재 및 재활용 유망 : 생분해, 종이가방, 친환경 포장재
 - * 플라스틱류는 재활용이 쉽지 않아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 → 온실가스 배출, 토양 황폐화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토목공사 및 건축기계류	선정사유	10년간 한국의 對파나마 수출액 약 70% 증가(HS 코드 6단위 기준 상위 6위)
	시장동향	파나마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경쟁동향	중국산, 유럽 제품과의 품질·가격경쟁
	진출방안	건설 프로젝트 납품 업체를 통한 수입선 발굴
품목명 2		
정수기 제품	선정사유	10년간 파나마 수입액 증가 추세, 편리성 추구 소비자 확대
	시장동향	정수기 수요 확대, 새로운 모델·라인 시장 진입
	경쟁동향	중국, 중남미, 유럽 등 다양한 국가 브랜드 경쟁 치열
	진출방안	현지 유명 유통사 발굴 및 소량 샘플 오더에 대응
품목명 3		
친환경 용기	선정사유	정부 규제 및 인식 변화에 따른 유망 품목
	시장동향	정부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친환경 대체재 수요 증가
	경쟁동향	국내 제조사 및 수입산 제품 다양
	진출방안	시장 선점, 대형 유통망과의 장기 계약
품목명 4		
의약품 및 의료기기	선정사유	의약품 수요 확대(만성질환 증가, 정부 의료제도 개선 노력) 공공의료 부문 현대화 추진을 배경으로 의료기기 시장 확대
	시장동향	한-중미 FTA 발효 후 의료기기 관세 철폐 예상,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경쟁동향	시장이 협소하고, 다양한 원산지의 제품 경쟁 치열
	진출방안	전략적 현지 파트너를 통해 공공·민간기관 입찰방식의 대량 주문 입찰 공략
품목명 5		
건설중장비	선정사유	건설 분야는 파나마 경제의 핵심 분야. 특히, 공공 인프라 개발사업 수요가 두드러지며, 민관 합작 등 민간투자도 활발한 편
	시장동향	코로나19 침체 이후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활성화
	경쟁동향	미국(Caterpillar, Bobcat), 일본(Komatsu) 브랜드
	진출방안	건설중장비의 부속 및 부분품 시장 공략
품목명 6		
기초 및 메이크업 화장품	선정사유	올해(2023년 1~7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수출액 증가
	시장동향	현지 시장에 주로 미용을 위한 전문의약품이 많고, 소매 화장품은 한국산이 흔하지 않아 공략 가능성 높음

	경쟁동향	프리미엄 제품으로 미국과 유럽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로 중남미 브랜드가 점유율이 높음
	진출방안	기초라인으로 바디크림, 핸드크림, 선크림과 같이 기능성이 높은 제품을 공략하고, 메이크업 라인으로 클렌징, 쉐딩 등의 제품이 유망
품목명 7		
자동차 배터리와 그 부분품	선정사유	對파나마 한국 수출 3년(2020~2022) 연평균 증가율 18%, 올해(2023년 1~7월) 전년도 58배 증가
	시장동향	자동차부품에 대한 높은 수요 유지
	경쟁동향	미국(Optima), 독일(Bosch) 등의 브랜드가 유명
	진출방안	현지 자동차부품 대리점 바이어 혹은 도매상 바이어 발굴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병원 서비스	선정사유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기대 (만성 질병 증가, 의료복지제도 확대, 장기적 경제성장 등)
	시장동향	고가 사설 병원과 질 낮은 정부 운영 병원으로 양분
	경쟁동향	개인병원 클리닉 운영 다수
	진출방안	공공 분야 추진 대형 프로젝트 입찰 공략
품목명 2		
건설 서비스	선정사유	정부의 공공 인프라 확대 기조
	시장동향	도로, 항만, 발전소 등 건설사업 추진
	경쟁동향	전통적으로 미국, 스페인, 브라질 건설 기업이 장악
	진출방안	파나마 발주처와의 인맥 구축을 통한 입찰 정보 입수
품목명 3		
콘텐츠	선정사유	현지 한국 문화 콘텐츠(드라마, 음악 등) 관심 확대
	시장동향	SNS상 인기, 영화관에서의 콘서트 상영, 영화 상영
	경쟁동향	상업적 콘텐츠 전파 경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적음
	진출방안	현지 유력 TV 채널, 영화관·공연장 관계자를 통한 콘텐츠 전파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2024 파나마 종합전시회(Expocomer) 한국관 운영(3월 중)

- 전자제품, 식음료, 화장품, 공업용품, 의류, 장신구 등 소비재 위주 전시회
 - 중미 최대 규모 소비재 전시회 참가를 통해 중남미 유망 바이어 상담 지원
 - 1983년 이래 39회째 개최되는 중남미 내 주요 전시회
 - '22년 한국관 8개 사 참가; 304건, 약 915만 달러 상담 성과

▣ 2024 중남미 자동차부품 전시회(Latin Autoparts & Tyre Expo)(7월 중)

- 자동차부품, 각종 자동차 액세서리, 타이어, 자동차 관련 장비 전시회
 - 중남미와 카리브해의 물류 거점 지역인 파나마에서 개최
 - 인접국(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등) 바이어 참석
 - 최근 미국·멕시코 생산 한국 자동차 판매 증가로 사후 수리용 품목 수요 大
 - 타이어전과 자동차부품전 통합 개최. 전시회 규모 확대에 의한 관람객 증가 기대

첨부 4**'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총선(General Elections)	'24년 5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2024 파나마 종합전시회(Expocomer)	2024.3.5~7
2024 파나마 자동차부품/타이어 전시회(Latin Autoparts & Tyre Expo)	2024.7.31~8.2
2024 파나마 주택전시회(CAPAC Expo Habitat)	2023.9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최원석	관장	파나마 무역관	+507-264-8105(200)	jmorning@kotra.or.kr
2	박효민	과장	파나마 무역관	+507-264-8105(201)	hyomin@kotra.or.kr

2024
파나마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